

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산불피해농가 영농철 일손돕기

✎ 석경혜 기자 | ⓒ 승인 2025.07.04 13:02

경북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및 마을의 일상 회복 지원

[국제아이저널=경북 석경혜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 7월 3일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·남안동농협·농가주부모임안동시연합회원과 함께 'KRC 영농도우미' 활동을 실시했다.



▲산불피해농가 영농철 일손돕기 ⓒ국제아이저널

이날 행사는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경북지역 산불이 안동시를 덮쳐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고, 마을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진행됐다.

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농협, 주부모임 회원 40여명이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가를 방문하여 영농철 감자수확, 잡초제거, 주변환경정화 등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,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.

피해주민 권OO씨는 “무더운 날씨에도 농작물 피해 복구에 두 팔을 걷어붙인 지역 농업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말했다.

박승표 안동지사장은 “우리공사와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, 남안동농협 및 여성단체 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산불 피해 농가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, 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하겠다”고 밝혔다.